

Emerging Giants in Asia Pacific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동향 및 전망
한글 요약본



2022

[kpmg.com](https://www.kpmg.com)

business.hsbc.com

Contents

아시아태평양의 이머징 자이언트	3
아시아태평양 12개국 6,472개 스타트업 분석	4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의 산업 분야	5
아시아태평양의 벤처캐피털 투자액	6
아시아태평양 국가별 벤처캐피털 거래액	7
아시아태평양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 및 인구 특성	8
아시아태평양의 디지털 생태계	9
아시아태평양 뉴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	10
아시아태평양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슈퍼앱	11
아시아태평양 핀테크의 특징	12
아시아태평양 각국 정부의 신성장동력 지원	13
아시아태평양 ESG 비즈니스 기회	14
아시아태평양 스타트업의 변화 주도과 인재 확보 전략	15
한국의 이머징 자이언트	16
한국의 디지털 R&D 투자와 이머징 자이언트 부상	17
한국의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 특징	18
시사점 및 도전 과제	19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의 도전 과제	20
Appendix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0 리스트	22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T 02-2112-6744
E hyojunglee@kr.kpmg.com

류승희
선임연구원
T 02-2112-7469
E seungheeryu@kr.kpmg.com

최창환
선임연구원
T 02-2112-7438
E changhwanchoi@kr.kpmg.com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Emerging Giants in Asia Pacific”을 삼성KPMG 경제연구원에서 한글 요약한 자료입니다.



◀ 표지 클릭 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KPMG는 HSBC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아시아태평양 주요 신흥 기업 동향 및 전망(Emerging Giants in Asia Pacific)’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SAR),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12개 주요 시장에서 5억 달러 내외의 가치로 평가되는 6,472개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위 100개 이머징 자이언트를 공개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10개의 떠오르는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 리스트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의 이머징 자이언트



© 2022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 2022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태평양 12개국 6,472개 스타트업 분석

Executive overview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빠른 성장과 함께 글로벌 주요 비즈니스 변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서 스타트업 규모와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가 등장하면서 더욱 많은 투자자와 창업자가 지역 내 유입되고 있습니다.

KPMG와 HSB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습의 이해를 위해 중국, 인도,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한국, 홍콩(SAR),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태국 등 12개 주요 시장에서 잠재적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으로 간주되며 5억 달러 내외의 가치를 받고 있는 6,472개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각 12개 국가별 시장을 선도하는 10개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내 100개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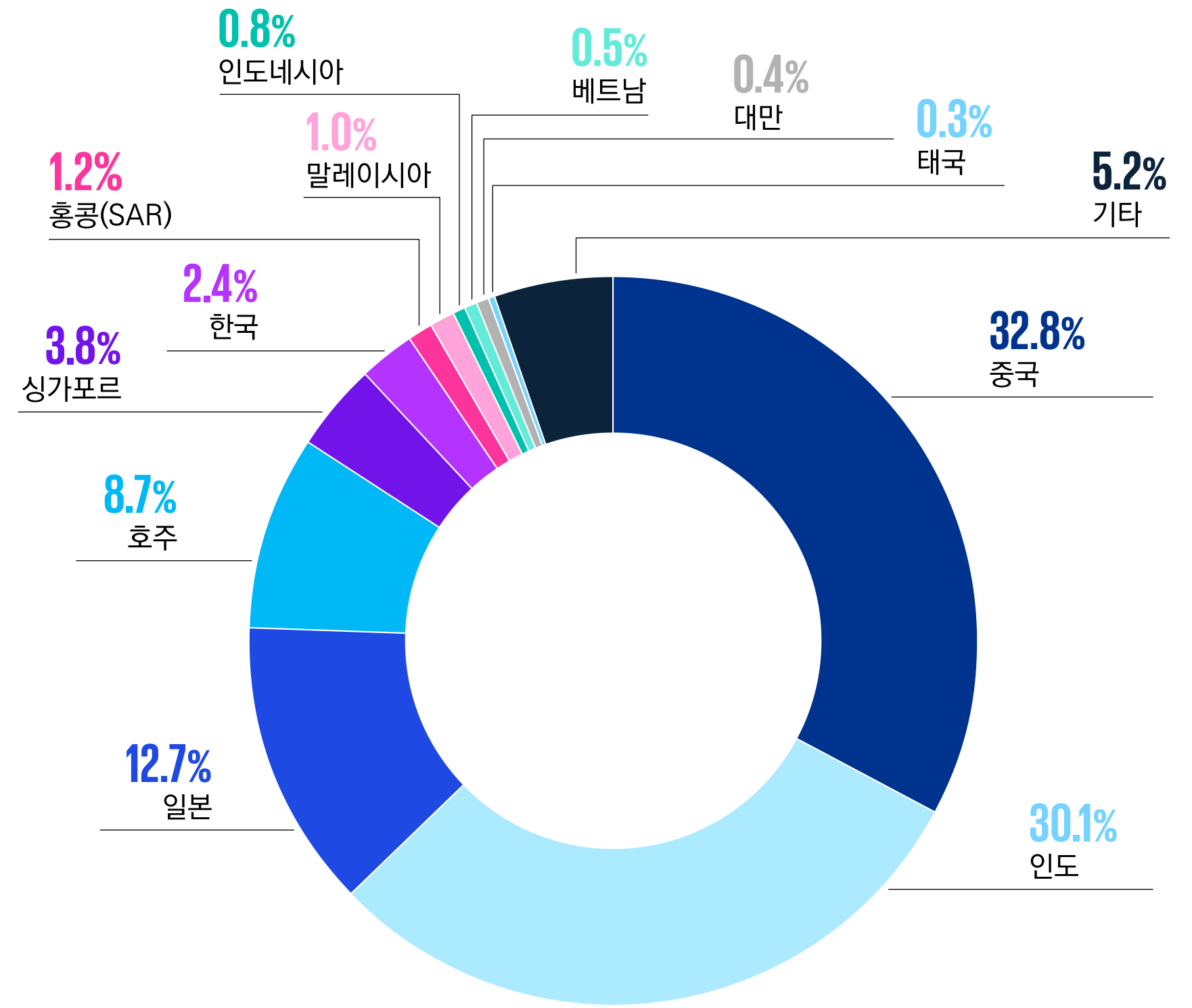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 선별을 위해 기업가치 추정, 벤처캐피탈 투자금 관련 Pitchbook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KPMG·HSBC가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별 스타트업 창업자 및 경영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산업 분야 내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상당 수는 중국(약 33%)과 인도(30%)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일본 13%, 호주 9%, 싱가포르 4%, 한국 2%, 홍콩(SAR)에 약 1% 속해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 속한 기업은 전체의 약 3%를 차지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내 국가별 '이머징 자이언트' 분포 (백분율)
6,472개 기업의 소속 국가별 분류



Source: KPMG·HSBC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6,472개 스타트업(기업가치 5억 달러 내외) 대상 분석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의 산업 분야

조사 대상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산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도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선별된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산업군은 핀테크, 생명공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전통적인 섹터를 넘어 약 120개 가량의 다양한 기술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25% 이상(1,780개)이 블록체인 관련 범주인 대체불가토큰(NFT) 및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부동산 및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도 상위 20개 업종에 포함되며 현재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메타버스와 웹 3.0 등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지속가능성 및 ESG 관련 분야 기업도 많았는데, 상위 20개 세부 섹터 중 EV 충전 인프라, 지속 가능한 패키징, 지속 가능한 패션 등 3개 섹터가 포함됐으며,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약 15%가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조공학기술(Assistive Tech), AI 활용 신약 개발, 신경기술 및 정신건강기술 등 4개의 의료 관련 부문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IoT 보안,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 또한 상위 10대 산업 섹터에 포함됐습니다. 가상 이벤트(Virtual Events), 로우 코드/노코드(Low Code/No Code) 등 가상 협업 기술 관련 분야도 상위 20대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인지 컴퓨팅 등 첨단 컴퓨팅 기술도 20대 세부 산업 분야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20대 세부 산업 분야



아시아태평양의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들은 대담하고 야심적이며 최첨단의 새로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입니다. 이들 이머징 자이언트는 누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어떤 시장을 타겟팅할 것이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고, 회사 문화와 철학을 바꿔 나갈지에 대해 혁신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이 현재 고객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기술 환경을 혁신하고 개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Darren Yong
Head of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KPMG Asia 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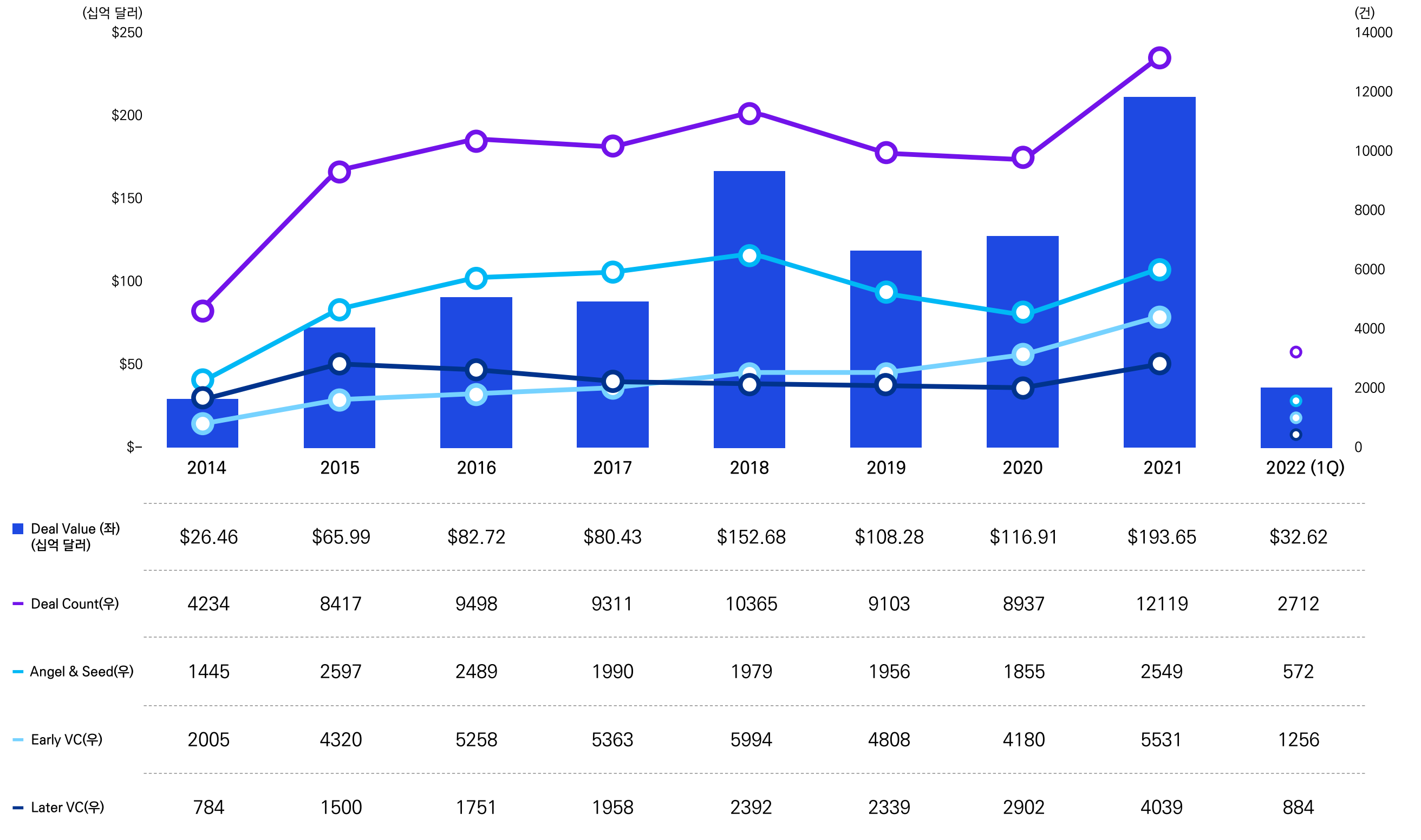
Source: KPMG·HSBC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6,472개 스타트업(기업가치 5억 달러 내외) 대상 분석; 대상 기업의 120개 산업 분야 중 상위 20개 세부 산업 분야

아시아태평양의 벤처캐피털 투자액

202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총 유니콘 기업 수는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하여 450개를 넘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가 전례 없이 급증하였습니다. 전 세계 민간 벤처 기업에 투자된 6,700억 달러 중 1,930억 달러가 아시아태평양에 몰렸고(전년대비 65.6% 증가), 투자 건수는 12,119건입니다. 이러한 급증 추이에는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찾으려는 투자자의 갈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보다 개선된 투자 환경으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 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플랫폼 Grab이 우회상장으로 나스닥에 상장되며 기업가치 400억 달러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벤처 투자액 (2014-2022 1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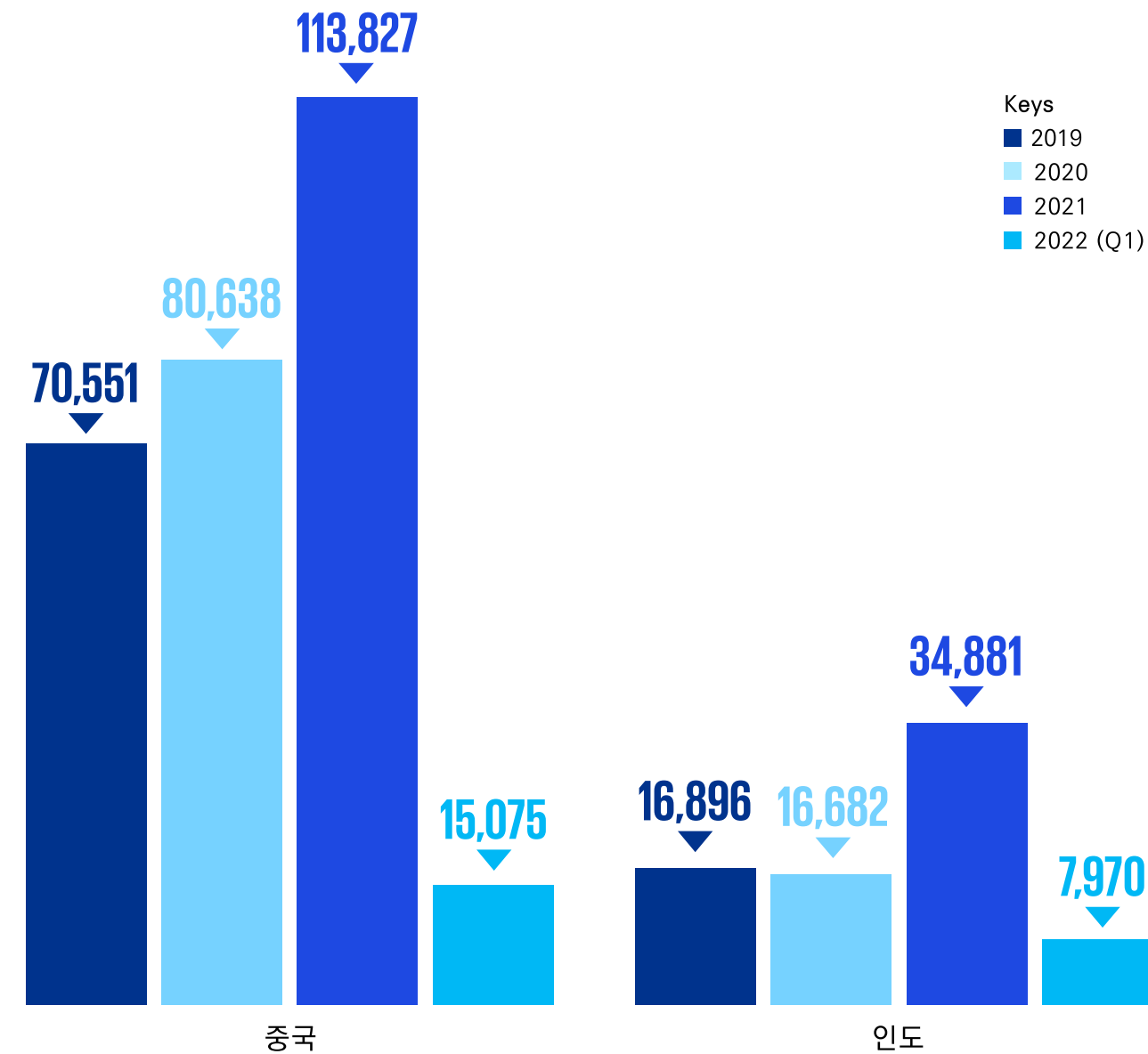
Source: KPMG Venture Pulse Q1 2022

아시아태평양 국가별 벤처캐피털 거래액

2022년 1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벤처캐피털 투자금을 비춰봤을 때, 2022년 아태 지역 투자금은 2021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9년과 2020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등의 시장에서는 2022년 1분기 거래액이 이미 2020년 총액을 초과했거나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별 벤처캐피털 총 거래액 (2019-2022 Q1)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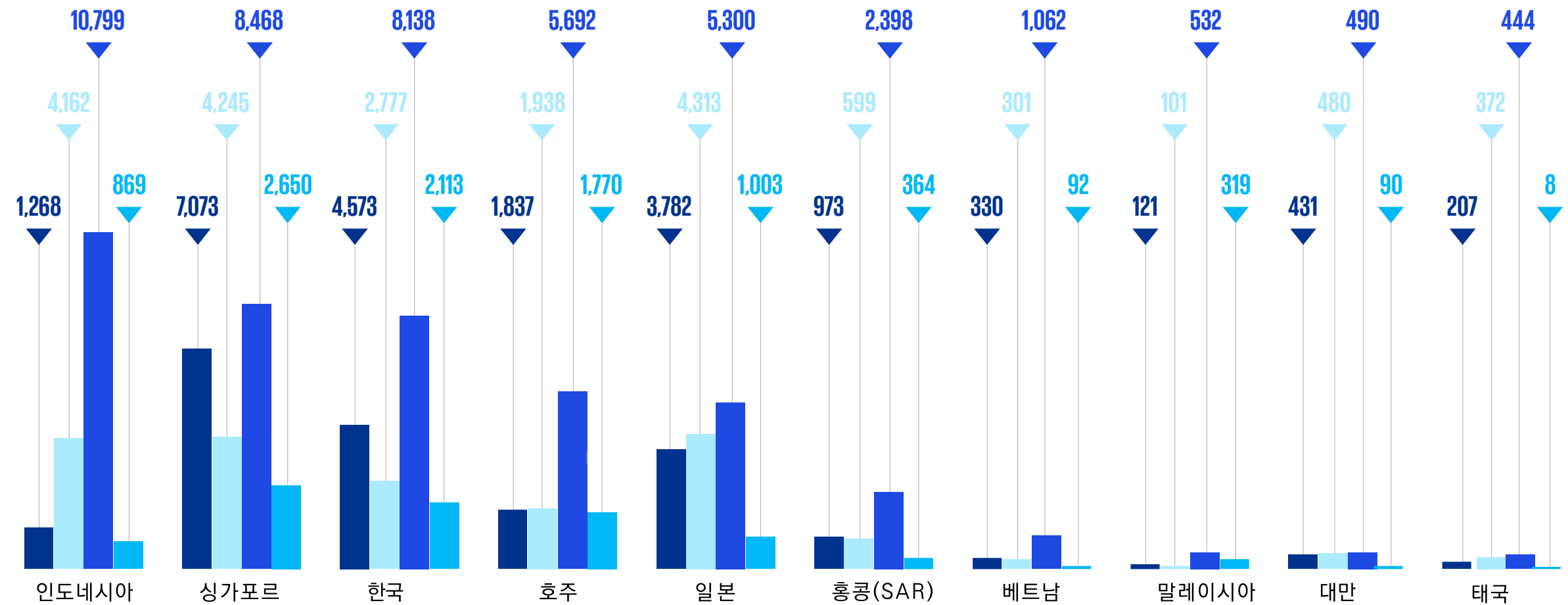


Source: KPMG and HSBC analysis of Pitchbook data



글로벌 금융 센터인 싱가포르에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B2B 소프트웨어 또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 관심이 커지는 현상을 관찰해왔습니다. 자산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프라이빗뱅크 및 고액 자산가들은 새로운 경제에서 투자 및 파트너십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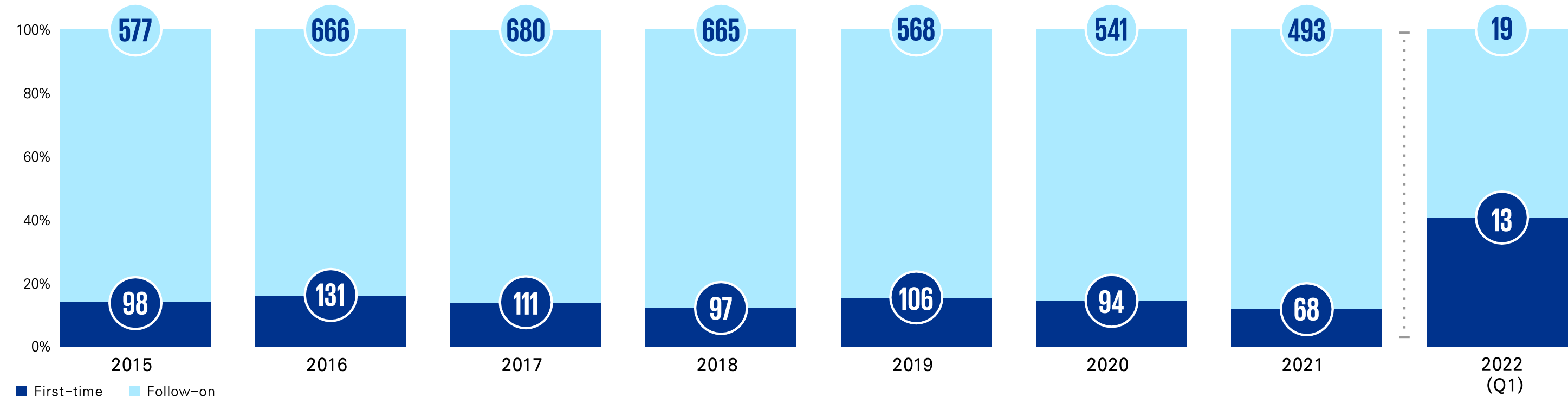
Kee Joo Wong
CEO, HSBC Singapore



아시아태평양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 및 인구 특성

또한 2022년 1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 비율이 늘어난 것은 지역 내 신규 투자를 통해 성공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벤처캐피털 펀드 매니저들의 낙관적인 인식을 반영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 vs. 후속 투자 (2015-2022 Q1)



Source: KPMG Venture Pulse Q1 2022

아시아태평양의 중산층 증가 및 MZ세대의 높은 비중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 정책 도입과 함께 디지털 소비 전환이 촉진되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가며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물류 및 배송 플랫폼과 온라인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확장해왔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디지털 중심 기업이 부상하게 된 또 다른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 차별화된 시장 및 자금에 대한 빠른 접근성 등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기반을 둔 World Data Lab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시아 중산층 인구가 10억 명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중산층 인구는 현재 9억 명에서 약 12억 명으로, 인도는 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7,600만), 필리핀(3,800만), 베트남(2,300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산층 인구 또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스스로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생각하고 신기술 수용도가 높은 밀레니얼 세대(25-40세) 및 Z세대(10-25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의 디지털 소비자 증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산층 인구 증가와 함께 디지털 소비자 또한 지속 증가할 것입니다. GSM협회는 202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가 30억 명을 넘고, 중국에만 12.6억 명의 가입자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시점에 도달하면 중국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될 것이지만, 나머지 지역의 평균 가입률은 여전히 62%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의 디지털 생태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투자자와 창업자의 많은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시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홍콩(SAR) +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고성장 경제에 선진 금융 허브를 더하면 더욱 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에는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태 지역 국가들은 자국 내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은 기존의 은행과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녹색채권, 사모펀드, 뮤추얼펀드, 클라우드펀딩 등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처럼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더욱 큰 성장 계기가 생겨났습니다.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자금 조달 규모가 커지고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B2B 부문이 더욱 확대되고, 아태 지역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SaaS(Software-as-a-Service)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친환경) 자동차, 반도체 및 하드웨어 관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중심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gidio Zarrella
Partner, Clients and Innovation, KPMG China

아시아태평양 뉴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

아시아태평양 새로운 비즈니스의 6가지 트렌드



중국·인도·동남아 아태 전체적 성장 (Region-wide growth)

중국은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하지만, 디지털 혁신의 원천을 두고 인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중산층 인구의 확대와 함께 아태 지역의 또 다른 주요 디지털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B2C 스타트업에 이은 B2B의 부상 (B2C now; B2B soon)

이커머스, 페이먼트, 배달 및 개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종종 '슈퍼앱'으로 결합됨) 등이 아태 지역의 신흥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면서 B2C, 핀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성숙해가면서 기업의 생산성, 교육, 의료, 청정 기술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의 B2B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입니다.



중산층 및 Z세대 확대 (Demographic drivers)

아시아 중산층의 확대, 특히 Z세대 소비자의 등장은 이 지역의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풍부한 인적자원, 특히 높은 젊은층 비율의 인구구조를 지닌 사회가 변화의 최전선을 견뎌지만, 일본의 '소사이터티 5.0' 모델처럼 아시아지역 내 선진 고령화사회 또한 혁신을 거듭할 것입니다.



현지화된 비즈니스 모델 확산 (Localized business models)

아태 지역의 여러 고유한 사회, 경제, 정치적 특징을 고려한 현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권에서의 강력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러 소셜커머스 스타트업이 현지 경험을 활용하여, 소셜커머스가 아직 많이 진출하지 않은 다양한 섬에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 Pinduoduo가 중국의 중소 도시에 집중하며 사업을 확장했듯이 현지화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업 경쟁력 (Manufacturing spill-over)

로봇기술과 자동화는 공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및 추적(Tracking) 기술은 생산 공급망의 효율성 및 추적 가능성, 투명성 등을 촉진합니다. 아태 지역, 특히 동아시아의 제조 및 수출 경쟁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ESG의 부상 (ESG on the rise)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스마트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고, 운송 네트워크를 기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대체하고, 녹색금융 솔루션을 마련해 나가는 등 ESG 비즈니스의 범위가 새롭게 확장되고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중산층의 확대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생태계 내 빠른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활용하는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획득할 것입니다.

Dan Roberts

Global Head of Business Banking, HSBC



아시아태평양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슈퍼앱

아시아태평양 기업들의 모바일 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아태 지역은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컴퓨터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폰으로, 현금에서 전자 결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는 모바일 광대역과 결합된 모바일 디바이스가 전자결제 시스템 확산을 가속화했습니다. 한 예로 베트남의 주요 전자지갑 MoMo의 사용자는 2020년 2,5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 말까지 5,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 등장과 인터넷 보급으로 '슈퍼앱'(다양한 기능을 사용이 편리한 단일 플랫폼에 모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났습니다.

중국의 Alipay의 경우, 알리바바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Taobao 및 Tmall과의 연계로 중국 최대 결제 앱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WeChat의 경우 본래의 채팅 기능에다가 디지털 지갑,

이커머스, 게임 등 기타 여러 기능을 추가한 슈퍼앱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Grab, 인도네시아의 Gojek 역시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카카오는 한국 인구의 약 90%에 해당하는 4,7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시장 리더로 자리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Zalo 또한 베트남 국민 메시징 앱이라는 위치를 활용하여 상위 3대 전자지갑으로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인도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지만 쇼핑, 여행, 보험 및 기타 서비스 등이 통합된 전자지갑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 Paytm이 가장 유력한 승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은 기술에 정통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5억 명 Z세대의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Anson Bailey

Head of Consumer & Retail, Asia Pacific; Head of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Hong Kong, KPMG China



아시아태평양 핀테크의 특징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어느 곳보다 광범위한 핀테크 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경험한 변화의 속도는 그 전 5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디지털 변화를 능가했습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부각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시 거주자 10명 중 9명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WeChat Pay 또는 Alipay를 사용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정교한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슈퍼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18세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 90%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상당합니다.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되지 않지만 홍콩(SAR)과 싱가포르를 물론 인도와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신흥 시장에서 암호화폐 도입이 급증했습니다. Chainalysis Global Crypto Adoption Index에 따르면 2021년(2분기 말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는 전년대비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SAR)의 Amber Group과 싱가포르의 Matrixport 등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체불가토큰(NFT) 게임 개발사 베트남의 Sky Mavis,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 중국의 분장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업인 Hyperchain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과 공급자의 관계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금융 서비스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Aman Narain
Global Head of Platforms, HSBC

아시아태평양 각국 정부의 신성장동력 지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에는 중소기업청이 있고, 홍콩(SAR)과 싱가포르에는 스타트업 유치 및 지원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인도의 '스타트업 인디아 이니셔티브(Start-up India Initiative)'는 2016년 출범 이후 약 50,000개의 스타트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는 25년 넘게 ICT 분야 및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여러 금융 규제 기관은 시장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싱가포르 금융정보 교환소(Singapore Financial Data Exchange)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재정을 계획·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개인 동의하에 은행 및 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홍콩(SAR)의 홍콩통화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2016년부터 홍콩(SAR)의 핀테크 인재풀 확대를 위해 '핀테크 커리어 액셀러레이터 계획(Fintech Career Accelerator Sche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ESG 비즈니스 기회



우리는 ESG 연계 금융의 확대로 기존 많은 제품라인이 재창조되고, 지속가능경영 중점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재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 지속적인 부가 창출되며 기술 기업에게 자산 관리, 자본시장, 보험 관련 비즈니스 분야 등에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elvin Tan
Head of Sustainable Finance and Investments, ASEAN, HSBC Singapore

정부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기업들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여 협력할 것입니다.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전 지역에서 비즈니스 및 투자 전략의 중심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들과 커뮤니티가 ESG 지식 기반을 구축하도록 투자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커뮤니티, 기업, 직원들에게 저탄소 환경에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교육해야 합니다. 경제주체들이 ESG가 어떻게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주는지 더욱 잘 이해하면, 관련하여 더욱 알맞은 경영 전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행하고, 그 밖에 여러 환경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 운송, 데이터 분석, 금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의 엄청난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5개년 계획(2021-2025)은 녹색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고, 총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율을 2020년 약 16%에서 2025년 20%로 늘리기 위해 에너지, 제조, 중공업, 건설, 모빌리티 부문 등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규모의 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기술 및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타깃 연도인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GDP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조 5,0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결국 녹색금융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수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SAR)과 싱가포르의 금융 부문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리포팅 요건을 준수하는 ESG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스타트업의 변화 주도와 인재 확보 전략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스타트업에서 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인재 확보가 중요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포인트를 고려할 때 인재 확보 문제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 일하는 장소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근무 및 화상 회의 활성화 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아웃소싱 등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로봇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 부문에서는 생산 공정에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반복적이거나 정형화된 작업을 처리하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와 같은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사용이 생산성 향상으로 원활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미 적지 않은 기업들은 자사의 수익성 또는 실적 부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이들 인재를 유치할 인센티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핵심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고 유지하는지가 중요 과제일 것이며, 분산된 인력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와 기술을 잘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쇼핑하고, 정보를 소비하고, 학교에 다니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포함하여 기존 관행과 습관이 뒤집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변화는 단순 디지털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운영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기존 업계 등 다양한 유형의 회사에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 기업은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에 발맞춰 중점 사업분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는 한국의 웹툰 제작사가 미국에서 신규 고객을 발굴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B2B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4개의 신규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현재 기업가치가 5억 달러 내외의 고성장 기업 및 높은 잠재력을 지닌 비즈니스)은 앞으로 아태 지역 전역에서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사람들의 일상 생활 모습을 재편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조 경쟁력 향상,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 증진, 향후 성장을 이끌어갈 서비스 부문 강화 등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한국의 이머징 자이언트



© 2022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 2022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ALL RIGHTS RESERVED.



한국의 디지털 R&D 투자와 이머징 자이언트 부상

South Korea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머징 자이언트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R&D 투자 및 인재 발굴 노력과 함께 글로벌 창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3개에 불과하던 한국 유니콘 기업은 2022년 4월 12개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수산물 무역 플랫폼 트릿지(Tridge•10위),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스타트업 포티투닷(42dot•49위),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두산로보틱스(79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00대 이머징 자이언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이 주목을 받게 된 동인으로 먼저 디지털 서비스 R&D(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R&D 투자는 83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GDP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특히 R&D 투자의 75%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민간 기업에서 충당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기회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 무신사,마켓컬리 등 플랫폼 산업에 집중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이동 삼성KPMG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의 주요 웹툰 플랫폼 기업들에 해외 판로를 열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DC코믹스 등 미국 출판계와 협업 중이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미국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5억 1,0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한국 스타트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소프트뱅크가 여행 및 레저 플랫폼 야놀자에 17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서울을 세계 5대 창업센터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4년간 1조 9,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0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신산업과 ESG 관련 신규 사업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머징 자이언트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2022년 출범한 서울투자청은 AI, 바이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투자 성공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연 300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겠다는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 특징

한국의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 기업

	분야	글로벌 순위
1 트릿지 (Tridge)	애그테크(AgTech, Agriculture+ Technology), 공급망테크(Supply Chain Tech)	10위
2 포티투닷 (42dot)	자율주행, 이커머스, 모빌리티테크, 승차공유, 로봇틱스 및 드론, 공급망테크	49위
3 두산로보틱스	제조업, 로봇틱스 및 드론	79위
4 플렉스 (Flex)	HR테크	
5 플라네타리움 (Planetarium, 나인코퍼레이션)	게이밍, 암호화폐/블록체인	
6 블랭크코퍼레이션 (Blank Cooperation)	이커머스	
7 뱅크샐러드 (BankSalad)	핀테크	
8 퓨리오사에이아이 (FuriosaAI)	AI(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빅데이터	
9 엔유 (Nyou)	게이밍, 모바일	
10 코인원 (Coinone)	암호화폐/블록체인, 핀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Source: KPMG 및 HSBC 분석 기준 벨류에이션 5억 달러 내외 기업으로 선정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필두로 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의지는 한국 경제에 큰 시사점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거대한 동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김이동 부대표
삼성KPMG 스타트업지원센터장



한국의 인재풀과 창업 생태계는 기업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이커머스 및 엔터테인먼트, 녹색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미래의 새로운 승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Jonathan Yip
Head of Global Banking, HSBC Korea



시사점 및 도전 과제



© 2022 Copyright owned by one or more of the KPMG International entities. KPMG International entities provide no services to clients. All rights reserved.

© 2022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의 도전 과제

Key takeaways

지속되는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난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가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서비스 도입으로 특히 기술 중심 비즈니스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포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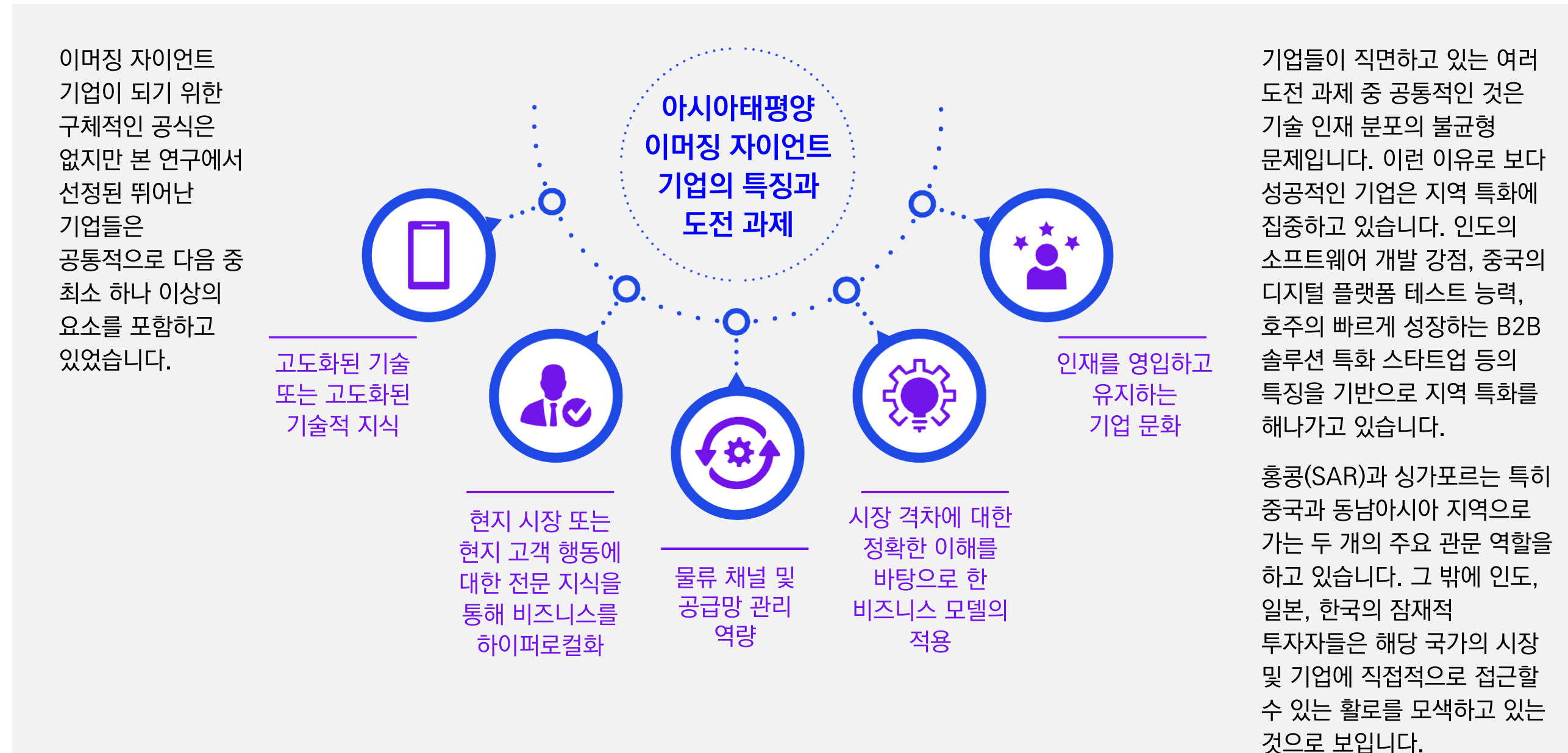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기업은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산발적 발생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과 공급망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자금 유동성이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KPMG Asia Pacific의 Head of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인 Darren Yong은 “아시아태평양의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야심적이며, 누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어떤 시장을 타겟팅할 것이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고, 회사 문화와 철학을 바꿔 나갈지 설정하는 데 혁신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ESG 및 지속가능 요소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통해 경쟁사 대비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여러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의 미래 설계입니다. 현재 고객에게 유용한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 10~30년 뒤 기술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의 도전 과제

생태계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은 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일반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및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기업은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파트너 기업 및 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PMG·HSBC 분석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업을 단순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아닌 협업 파트너로 보는 일반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솔루션 개발 목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지식재산권 및 자율성 등을 제공하는 긴밀한 협력은 보다 나은 결과를 창출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Tax 전략 및 ESG 방향성 정립

스타트업 기업이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각국의 규제와 정책입니다. 특히 부상하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응하여 진화하는 각국 정부 규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는 등 국제 조세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법인 관리 방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제로 정책 추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ESG 요구 증대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영향을 살피고 관련하여 투자자 및 대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이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ESG 및 세무 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스케일업(Scale up) 방향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는 창업자, 투자자,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정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지에 R&D 투자를 하고 현지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어 연구를 상용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 죽음의 계곡 구간을 극복하고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투자자와 멘토를 끌어들이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멀리 바라보는 싱크빅(Think Big) 전략

하나의 스타트업이 10억 달러 규모의 유니콘 기업이 될 동안 수천 개의 회사는 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내일의 또 다른 Grab, Foodpanda, Binance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키워 나가고, 기존의 것을 허물고, 열정 가득히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들이 이와 같은 '싱크빅(Think Big)' 과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크게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Appendix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0 리스트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0 기업 리스트

Leading 100 Emerging Giants in Asia Pacific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1	BioMind	중국	AI(인공지능) & 머신러닝, 헬스테크, 종양학	헬스케어 진단 기술
2	BrightChamps	인도	AI & 머신러닝, 에드테크(EdTech, Education+Technology)	이러닝(E-learning) 플랫폼
3	HIPAC	중국	이커머스, TMT(통신·미디어·기술)	이커머스 플랫폼
4	HuoMaoTV	중국	이스포츠(E-sports), 게이밍	이스포츠 플랫폼
5	InterGlobe Technology Quotient	인도	SaaS(Software as a Service), TMT(통신·미디어·기술)	호텔 및 관광 예약 시스템
6	Juspay	인도	핀테크, 모바일, 모바일 커머스, SaaS, TMT(통신·미디어·기술)	모바일 기반 페이먼트 플랫폼을 위한 소프트웨어
7	One (China)	중국	이커머스	이커머스 플랫폼
8	Catheon Gaming	홍콩(SAR), 중국	암호화폐/블록체인, 게이밍	P2E(Play to Earn) 게이밍 플랫폼
9	Spenco	싱가포르	B2B 페이먼트(Payment), 핀테크	페이먼트 소프트웨어 및 기술
10	트릿지(Tridge)	한국	애그테크(AgTech, Agriculture+Technology), 공급망테크(Supply Chain Tech)	애그테크 트레이딩, 농수산물 무역 거래 플랫폼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0 기업 리스트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11	VisionNav Robotics	중국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애그테크(AgTech), AI & 머신러닝, 자율주행, IoT(사물인터넷), 제조업, 로보틱스 및 드론, 공급망테크	자동차 산업용 차량
12	Avatar Technology	중국	AI & 머신러닝, 자율주행, 클린테크(CleanTech), 모빌리티테크(Mobility Tech)	신에너지 차량
13	Hongquan CRM	중국	빅데이터, 마케팅테크(Marketing Tech), SaaS	모바일 세일즈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14	Zhiyan Technology	중국	AI & 머신러닝	스마트홈 제품
15	Jimu	중국	핀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P2P(Peer to Peer) 대출 서비스
16	Microquanta Semiconductor	중국	클린테크(CleanTech), 제조업	태양 전지 모듈
17	Finder	호주	핀테크	핀테크 플랫폼
18	iQiyi Sports	중국	모바일	스포츠 미디어 및 뉴스 플랫폼
19	Kuro Game	중국	게이밍, 모바일	모바일 3D 게임 및 비주얼 이펙트
20	Ki Mobility Solutions	인도	이커머스, 산업재(Industrials), TMT(통신·미디어·기술)	자동차 유지/보수 서비스, 온라인 유통
21	CanaanTek	중국	IoT	스마트 디바이스 탑재 5G RF(무선주파수) 반도체 부품 제조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22	Huayu	중국	에드테크(EdTech), 모바일, SaaS, TMT(통신·미디어·기술)	온라인 교육 플랫폼
23	JOYNEXT	중국	첨단 제조, 자율주행, IoT, 모빌리티테크(Mobility Tech)	자율주행 차량 기술
24	Memsonics	중국	첨단 제조, 제조업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기술 관련 제품
25	Hyperchain Technology	중국	암호화폐/블록체인, 핀테크, SaaS, 공급망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26	Teachmint	인도	에드테크(EdTech), 모바일, SaaS	원격 교육 플랫폼
27	ixigo (Le Travenues Technology Limited)	인도	이커머스, 모바일	AI 기반 관광 애플리케이션
28	Beijing JingPinTe Zhuang	중국	첨단 제조, 산업재, 제조업, 로보틱스 및 드론	광전 정찰(Photoelectric Reconnaissance) 장비 및 군용 로봇
29	HiScene	중국	AI & 머신러닝, AR(증강현실), 클라우드테크(CloudTech) & 데브옵스(DevOps), SaaS, TMT(통신·미디어·기술)	엔지니어링/제조업을 위한 VR(가상현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	Airtel Payments Bank	인도	핀테크, 모바일, 모바일 커머스, TMT(통신·미디어·기술)	모바일 뱅킹 서비스
31	Baijiayun	중국	AI & 머신러닝, 클라우드테크 & 데브옵스(DevOps), SaaS, TMT(통신·미디어·기술)	클라우드 기반 라이브 방송 소프트웨어/플랫폼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0 기업 리스트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32	Cygames	일본	AR(증강현실), 게이밍, 모바일, TMT(통신·미디어·기술)	온라인 게이밍
33	CDP (China)	중국	HR테크, 산업재, SaaS, TMT(통신·미디어·기술)	인적 자원 관리 서비스
34	Qyer	중국	모바일, TMT(통신·미디어·기술)	디지털 관광 서비스
35	Baofeng TV	중국	AI & 머신러닝	인터넷 스마트 TV
36	Imrfresh	중국	모바일	이커머스 플랫폼
37	Atlan	인도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모바일, TMT(통신·미디어·기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38	Jianke.com	중국	이커머스, 헬스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제약 관련 온라인 소매
39	Caddi	일본	산업재, 공급망테크	제조업 주문 관리 플랫폼
40	Stader Labs	싱가포르	암호화폐/블록체인, 핀테크, SaaS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및 애플리케이션
41	Ancun.cc	중국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데이터 관리 시스템
42	KY Express	중국	공급망테크	통합화 물류 서비스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43	Linkface (Beijing)	중국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안면 인식 기술
44	Zmeng Network Technology	중국	애드테크(AdTech),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커머스, IoT, 마케팅테크, 모바일, 모바일 커머스, SaaS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AI 및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플랫폼
45	Leadmicro	중국	클린테크, 제조업, 나노기술	박막공정 및 에치(Etch) 설비
46	yellow.ai	인도	AI & 머신러닝, 모바일, TMT(통신·미디어·기술)	고객경험 및 직원경험(Employee Experience)을 위한 대화형 AI 플랫폼
47	Re-Fire Technology	중국	클린테크, 기후테크, 모빌리티테크	연료 전지 시스템 및 수소 연료 전지 차량 파워트레인 엔지니어링
48	Mswipe	인도	핀테크, 모바일,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PoS(Point of Sale) 터미널
49	포티투닷 (42dot)	한국	자율주행, 이커머스, 모빌리티테크, 승차공유, 로봇틱스 및 드론, SaaS, 공급망테크	자율주행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 플랫폼
50	Waresix	인도네시아	산업재, 공급망테크	온라인 물류 플랫폼
51	AM Advertising	중국	애드테크(AdTech, Advertising+ Technology), TMT(통신·미디어·기술)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52	Beijing GEOWAY Software	중국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 기술 솔루션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0 기업 리스트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53	Smartisan Technology	중국	모바일, SaaS, TMT(통신·미디어·기술)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54	Incesoft	중국	첨단 제조,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로봇틱스 및 드론	로봇틱스 및 AI 기술
55	Happy Sharing	중국	이커머스, TMT(통신·미디어·기술)	중고 제품 공유 플랫폼
56	Gramophone	인도	애그테크(Agtech), 이커머스, 모바일, 공급망테크	애그테크(Agtech) 플랫폼
57	BlueStone	인도	이커머스	보석/액세서리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58	jss.com.cn	중국	핀테크, 공급망테크	핀테크 플랫폼
59	Atama +	일본	AI & 머신러닝, 에드테크(EdTech)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 플랫폼
60	Wiseco Technology	중국	빅데이터, 핀테크	신용점수 분석 기반 핀테크
61	Deltaphone	중국	첨단 제조,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IoT	IoT 및 AI 소프트웨어
62	Yes! Go Technology	중국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IoT, SaaS	무인 편의점
63	Hydbest	중국	핀테크	P2P 대출 서비스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64	Conflux Network	중국	암호화폐/블록체인, 핀테크, SaaS	블록체인 기술
65	Drivezy	인도	차량공유, 기후테크,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Mobility), 모바일, 모빌리티테크	차량 렌탈 플랫폼
66	Huibao Technology	중국	모빌리티테크	자동차 유지/관리 서비스를 위한 모빌리티테크, 보험 및 론(Loan)
67	Maicoi	대만	암호화폐/블록체인, 핀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 플랫폼
68	Multiplier (Singapore)	싱가포르	HR테크, 산업재, SaaS	HR서비스 플랫폼
69	Qingsongchou Network	중국	핀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70	Shanzhen	중국	헬스테크, LOHAS & 웰니스	헬스테크 플랫폼
71	MGL New Materials	중국	클린테크, 기후테크, 제조업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양극재 제조
72	Shenzhen Thunderbird Network Technology	중국	IoT, TMT(통신·미디어·기술)	인터넷 TV 서비스
73	Xinhua Zhiyun	중국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로봇틱스 및 드론, SaaS	온라인 미디어를 위한 AI 플랫폼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0 기업 리스트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74	Ickey	중국	이커머스	전기전자 부품 및 기기 이커머스 플랫폼	85	Kuyun Interactive Technology	중국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생산성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SaaS	미디어 기업을 위한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75	Global Mobility Service	일본	핀테크, IoT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서비스	86	Onion Academy	중국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에드테크 (EdTech), TMT(통신·미디어·기술)	초등학생 및 중고생을 위한 과학·기술 온라인 교육 플랫폼
76	Mini Vision	중국	AI & 머신러닝, 핀테크	컴퓨터 비전(Vision) 기술	87	Twenty First Century Aerospace Technology	중국	커머셜 제품,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빅데이터	공간 원격 센싱, 빅데이터 서비스
77	PERA Global	중국	3D 프린팅, 첨단 제조, 제조업	산업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3D 프린팅 기술	88	Vision Medicals Technology	중국	헬스케어 서비스, 연구·실험 (Laboratory) 서비스(헬스케어),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생명과학, 종양학	정밀 의료 치료를 위한 유전자 진단(Genetic Diagnostic) 기술
78	Che300.com	중국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산업재, 모빌리티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중고차 관련 프라이싱(Pricing) 서비스 플랫폼	89	dayi35.com	중국	커머셜 제품, 산업용 제품 및 부품 이커머스, 공급망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플라스틱 원료 관련 이커머스 플랫폼
79	두산로보틱스 (Doosan Robotics)	한국	제조업, 로보틱스 및 드론	산업용 로봇	90	FineEx	중국	커머셜 서비스, 물류, 이커머스, 산업재, 모빌리티테크, 공급망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물류 서비스 플랫폼
80	Sinoiov	중국	커머셜 서비스, 물류, 빅데이터	화물차량 모니터링 플랫폼	91	Huoli Tianhu	중국	커머셜 서비스, 미디어 및 정보 서비스(B2B), 빅데이터, 모바일, TMT(통신·미디어·기술)	개인화 관광 서비스 플랫폼
81	Makeblock	중국	비금융 서비스, 교육 및 트레이닝 서비스(B2C), 에드테크(EdTech), 로보틱스 및 드론, 공급망테크	DIY(Do-it-Yourself) 로보틱스 건설 및 프로그래밍 플랫폼	92	Jar (Financial Software)	인도	소프트웨어, 금융 소프트웨어, 핀테크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82	Sunyur	중국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생산성 소프트웨어, B2B 페이먼트, SaaS, 공급망테크, TMT(통신·미디어·기술)	기업용 디지털 조달 관리 솔루션	93	Niyo	인도	소프트웨어, 금융 소프트웨어, 핀테크, 모바일, TMT(통신·미디어·기술)	페이롤(Payroll) 관리 플랫폼
83	Wanjiaan	중국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생산성 소프트웨어, 클라우드테크 & 데브옵스(DevOps), IoT, TMT(통신·미디어·기술)	AI 및 IoT 솔루션 및 상품	94	WinZO	인도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이스포츠, 게이밍	이스포츠 게이밍 플랫폼
84	Watrix Technology	중국	커머셜 서비스, 보안 서비스(B2B),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TMT(통신·미디어·기술)	보안 감시용 걸음걸이 인식 (Gait Recognition) 기술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Top 100 기업 리스트



순위	기업	국가	섹터	비즈니스
95	Secure Code Warrior	호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테크 & 데브옵스(DevOps), 사이버 보안, SaaS	사내 디벨로퍼 및 아웃소싱 디벨로퍼(In-house & Outsourced Developer)를 위한 시큐어 코딩 (Secure Coding) 플랫폼
96	Miao Health	중국	헬스케어 기술 시스템, 의료 기록 시스템, AI & 머신러닝,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 TMT(통신·미디어·기술)	헬스테크 플랫폼
97	Omniscient	호주	헬스케어 기술 시스템, 기타 헬스케어 기술 시스템, AI & 머신러닝, 클라우드테크 & 데브옵스(DevOps), 모바일	신경외과 수술(Neurosurgery), 신경학(Neurology), 신경과학(Neuroscience)을 위한 소프트웨어
98	FiNC	일본	헬스케어 기술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헬스케어), 헬스테크, LOHAS & 웰니스, 모바일	AI 기반 헬스테크 플랫폼
99	Remebot	중국	헬스케어 디바이스, 외과용 디바이스, 로보틱스	신경외과 수술(Neurosurgery)을 위한 로봇(Navigation & Orientation Robot) 개발
100	Eucalyptus	호주	디지털 헬스, 헬스케어 기술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헬스케어

Source: KPMG 및 HSBC 분석 기준 밸류에이션 5억 달러 내외 기업으로 선정

Disclaimer: The selection of the Emerging Giants in Asia Pacific mentioned in this report (including Leading Emerging Giants lists in in prominence in their respective markets,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advancement and maturity of start-up ecosystems regionally. Selection for these lists is based on KPMG and HSBC each of 12 Asia Pacific markets and the Asia Pacific 100 Leading Emerging Giants list) aim to increase market attention to innovative technology-focused new economy enterprises which are growing analysis of Pitchbook data, referencing latest current valuations as reported by Pitchbook on 30 April 2022. Sector verticals identified are based on Pitchbook sector vertical data tagging associated with the mentioned companies as of 30 April 2022. Identified sector verticals are: 3D printed Buildings, 3D Printed Foods, 4D printing, AI in Foodtech, AI Ops, AI-Enhanced Learning, AI-Powered Drug Discovery, Air Taxis, Alternative Home Financing, Anti-Aging, Art Trading Platforms, Assistive Tech, Autonomous Delivery, Auto Commerce, Autonomous Flight, Autonomous Shipping, Autonomous Trucking, Autonomous Vehicle Stimulation, Banking as a Service, Batteryless IoT Sensors, Blockchain Real Estate, Cashierless Checkout, Climate Risk Modelling-as-a-service, Cloud Gaming, Cloud Workload Protection, Cognitive Computing, Commercial Space Launch, Computational Storage, Concentrated Solar Power, Connected Fitness Equipment, Construction Robots, Contract Management Automation, Conversational Banking, CRISPR Diagnostics, Crowdsourced Testing, Data Centre Cooling Tech, Database Sharing,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ecentralized Finance, Desalination Tech, DevSEcOps, Digital Avatars, Digital Freight Brokerage, Digital Twins, DNS Data Storage, Edge Computing Semiconductors, eDiscovery Platforms, Election Tech, Electric Flight, Electric Vehicle Platforms,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 Fertility Tech, FinOps, Food Service Robots and Machines, Gene Therapies, Generative AI, Graph Databases and Analytics, Hyperloop, Indoor Mapping, In-Space Manufacturing, IoT Security, Lidar, Lithium Extraction Technology, Lithium Ion Battery Recycling, Livestream Commerce, Long Duration Energy Storage, Low Code / no Code, Medical Exoskeletons and Prosthetics, Medical Robotics, Mental Health Tech, Micro Insurance, Microweather, Mining Tech, Nanomedicine, Natural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Neurotechnology, Next Gen Network Security, Next Generation Battery Tech, NFTs, Ocean Data Collection, Passwordless Authentication, PayFac Enablers, Pollination Tech, Post Quantum Cryptography, Psychedelics, Quantum computing, Real Estate Crowdfunding, Renewable Ocean Energy, Resilient PNT, Robotic Process Automation, Security Deposit Alternatives,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 Service Mesh, Silicon Photonics, Sleep Tech, Small Satellites, Smart clothing, Smart Grid, Smart Home Assistants, Smart Jewellery, Smart Locks, Smart Mirrors, Smart Packaging, Smart Waste Management, Social Audio, Space Tourism, Sports Tech, Supersonic Travel, Sustainable Fashion, Sustainable Packaging, Swarm AI, TinyML, Urban Planning Tech, V2X, Virtual Events, VR Health, Warehouse Management Tech, and Youth Banking. Selection for these lists does not constitute an endorsement of specific companies, brands, products or services by KPMG or HSBC, nor does it constitute an evaluation or endorsement of the valuation of any company, nor does it evaluate the compliance and investability of the mentioned companies or interpret any regulatory policy. All included information is for reference only. While every attempt is made to ensure accuracy, neither KPMG nor HSBC can guarantee accuracy or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usiness Contacts

스타트업 지원센터 (SIC, Start-up Innovation Center)

SIC Desk

김이동 부대표, SIC 리더 yidongkim@kr.kpmg.com
 정도영 상무 doyoungchung@kr.kpmg.com

회계

안창범 전무 cahn@kr.kpmg.com
 최이현 전무 yeehyunchoi@kr.kpmg.com
 김시우 상무 siwookim@kr.kpmg.com
 윤주현 상무 joohunyoonyoon@kr.kpmg.com
 이채능 상무 chaeneunglee@kr.kpmg.com

세무

민우기 상무 wmin@kr.kpmg.com
 유정호 상무 jyoo11@kr.kpmg.com
 이근우 상무 klee44@kr.kpmg.com

재무

이재한 상무 jlee66@kr.kpmg.com
 장필선 상무 pilseonjang@kr.kpmg.com

컨설팅

정우철 전무 (Risk) woochuljung@kr.kpmg.com
 최석윤 상무 (Management) sukymoonchoi@kr.kpmg.com
 최흥범 상무 (Digital) heungbumchoi@kr.kpmg.com
 허인재 상무 (Strategy) ihur@kr.kpmg.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